

## 액션러닝을 적용한 통합교육구성원들의 협력에 대한 실행연구

이 원 희\*

권 휘 정\*\*

이 하 영\*\*\*

곽 승 철\*\*\*\*

공주대학교 BK21플러스 사업팀

---

---

### 《 요 약 》

---

---

이 연구에서는 통합교육구성원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통합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았다. 구체적으로 통합교육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액션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액션러닝 코치 8명을 중심으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로 구성된 20명의 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7회에 걸쳐 계획, 실행, 반성을 반복하는 실행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상이한 지평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선정된 주제에 대해 협력하여 실천방안을 탐색해가는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통합교육에 대한 참여자 간 상이한 지평을 융합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통합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

주제어 : 통합교육, 액션러닝, 통합교육구성원의 협력, 실행연구

---

\* 제 1저자

\*\* 공동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sckwak@kongj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부의 특수교육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비율은 2008년 67.3%에서 2017년 70.7%로 증가하였다(교육부, 2017). 이러한 수치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분리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건립 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통합교육과 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요구가 모두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현상을 볼 때, 과연 현재 우리의 특수교육이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특수학교 건립 문제는 단순히 통합교육이라는 차원에서만 다루어 질 수 없고,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통계 수치에서 보이는 통합교육 비율의 증가 이면에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문제들은 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언제나 부딪히고 있는 삶의 실재들이다.

통합교육의 당위성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교사와 학부모들은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더불어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정책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강민주, 최성규, 2011; 김용욱, 우정환, 2014; 이한열, 2014; 주미경, 김정연, 2009). 이를 통해 우리는 통합교육환경에서 장애학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현장에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교사와 학부모,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개별 주체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원길재, 조현근, 2014; 유중호, 정소영, 2015; 이대식, 2007; 허영석, 2013). 물리적 통합을 넘어 교육적 측면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교육현장에서 교수수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권현수, 2016; 이태수, 김태준, 2012; 황순영, 이미아, 2011). 이는 통합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개별화교육계획에 일반교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류규태, 박경옥, 2016; 박승희, 이효정, 허승준, 2015).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통합교육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통합교육에서 구성원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통합교육현장에서 관련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비롯한 역할갈등과 소진(최민숙, 2015), 조직 내 힘의 불균형과 교육관의 차이(원길재, 조현근, 2014),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생활지도(강현경, 황순영, 2012)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교사교육과 연수를 비롯한 통합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교사연수나 교육, 그리고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통합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당면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을 들 수 있다. 액션러닝은 구성원들이 팀을 이루어 사례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탐색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박수홍, 안영식, 정주영, 2010).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액션러닝코치의 피드백과 지원을 받으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나간다. 통합교육의 실천은 교육 주체들 간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팀 접근을 통한 액션러닝 활동이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액션러닝은 문제해결과 인력개발을 위한 방법으로 기업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교수-학습과 학교컨설팅을 위하여 교육현장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장경원, 고은현, 고수일, 2015). 임성혜(2014)는 액션러닝을 기반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은 교사들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수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은지와 정지현(2013) 또한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액션러닝을 활용한 결과, 자기주도적인 교수-학습을 비롯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액션러닝은 통합교육을 협력적으로 실천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해 나가는 이 연구에도 적합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분야에서 액션러닝을 활용한 연구는 주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김기룡, 이원희, 곽승철, 2015; 김자경, 강혜진, 김은영, 2012; 이미아, 김영미, 2017; 이원희, 곽승철, 2015).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도 있었다(김은라, 박재국, 정계숙, 2015; 박재국, 황순영, 최진혁, 20017). 액션러닝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실제 통합교육 현장교사보다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와 부모와 특수교사 등 개별 주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프로그램, 문제행동 중재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통합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통합교육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형태이며 그 구성원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론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벗어나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통합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통합교육구성원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해결책을 협력적으로 모색해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구성원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지평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성찰하고 서로가 긍정할 수 있는 실천사항들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 통합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함께 탐색해 나가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상이한 지평을 융합하고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액션러닝활동에 참여한 통합교육구성원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와 변화, 성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선정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액션러닝과 실행연구

이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을 선정하여 연구자와 참여자들이 협력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액션러닝을 적용한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행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유기웅 외, 2012). 이 연구에서도 연구자들이 액션러닝코치로 전반적인 연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연구자와 참여자 간 연구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지 않고 참여자 모두가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주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참여적 실행연구(PAR: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라고 할 수 있다.

실행연구는 교육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이와 같은 실행연구의 방법론적 특징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액션러닝을 통해 팀원이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적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통합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생활세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액션러닝은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8명의 액션러닝코치와 20명의 현장교사로 구성되었다. 액션러닝코치들은 공주대학교 BK21+사업팀 참여대학원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참여교사들은 특수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성하였다.

### 1) 연구 참여교사

연구 참여교사는 일반교육을 전공한 일반교사 10명,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 10명으로 총 20이 참여하였다. 팀 구성은 성별, 나이, 경력, 통합교육 경험 여부를 고려하여 세 개의 팀으로 이루어졌다. 1팀에는 일반교사이자 장애학생 학부모인 참여자가 한 명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연구 참여교사 20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 교사 현황

구분		1팀	2팀	3팀	계
성별	남	4	-	2	6
	여	3	7	4	14
나이	20대	-	3	3	6
	30대	5	3	1	9
	40대 이상	2	1	2	5
경력	5년 미만	2	2	2	6
	5년~10년	3	3	2	8
	10년 이상	2	2	2	6
학교 급	유치	2	3	3	8
	초등	3	2	1	6
	중·고등	2	2	2	6
통합교육 경험	통합교육 경험 있음	3	3	2	8
	통합교육 경험 없음	4	4	4	12
교사자격	특수교사	4	3	3	10
	일반교사(장애학생학부모)	3(1)	4	3	10
학부전공	특수교육	4	3	3	10
	일반교육	3	4	3	10

2) 액션러닝 코치

8명으로 구성된 액션러닝 코치들은 액션러닝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참여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액션러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갔다. 더불어 참여교사들이 통합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지원하였다.

액션러닝 코치들은 현재 모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상담 관련 학사과정을 거쳤다. 그 중 액션러닝 활동을 총괄한 리더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한 경험이 있다. 그 외 액션러닝코치들은 특수교육기관, 대안학교, 아동발달센터 등 다양한 교육경험이 있는 구성원들로 각 팀에 2~3명 씩 배정되었다. 이들은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주제 선정 및 해결책 논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탐색에도 참여하였다. 더불어 참여교사들의 논의가 선정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액션러닝 코치들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액션러닝 코치 정보

구분	역할	전공	경력
리더	전체 프로그램 진행	유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 박사과정, 액션러닝 프로그램 운영 경험(예비특수교사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 예비교사 대상 장애아 부모상담 프로그램)</li> <li>장애아 부모</li> </ul>
1팀	1팀 리더	특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 석사과정, 대안학교 교사</li> </ul>
	1팀 코치	특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 박사과정, 중등 특수 교사</li> </ul>
2팀	2팀 리더	특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 박사과정, 중등 특수 교사</li> </ul>
	2팀 코치	특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 박사과정, 중등 특수 교사</li> </ul>
3팀	2팀 리더	특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 석사과정, 아동발달센터 치료사</li> </ul>
	2팀 코치	아동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 박사과정, 아동발달센터 치료사</li> </ul>
	2팀 코치	특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원 박사과정, 초등 특수교사</li> </ul>

### 3. 연구 절차 및 내용

#### 1) 연구 절차

<표 3> 액션러닝 프로그램 실시 절차 및 내용

구분	일시	실시 내용
계획	4월 20일 (10시~12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액션 러닝 코칭 협의</li> <li>액션러닝 프로그램 기획 및 이해, 통합교육 사례 탐색 등</li> </ul>
실행	5월 9일 (12시~14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론 강의 1(30분): 전체 프로그램 설명(액션러닝을 활용한 문제 사례 탐구 및 해결 방안 모색 과정의 이해), 통합교육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의 유형 및 대처 사례 제안, 팀별 활동 과제 제안</li> <li>팀별 활동(60분): 팀 구성, 팀 리더 선정, 팀별 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제 명료화(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해 과정, 과제 명료화를 위해 코치가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하기), 역할 분담</li> <li>활동 정리(30분): 팀별 활동 결과 발표</li> </ul>
수정 계획	5월 15일 (10시~12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액션 러닝 코칭 협의</li> <li>이론 강의에 대한 협의, 통합교육, 액션러닝프로그램 선행연구 조사</li> </ul>
실행	5월 23일 (10시~13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론 강의 2(60분): 통합교육 지원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및 성공적인 대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학습: 통합교육 관련 교수학습 사례, 협력 교수, 통합교육 관련 교수 학습 사례, 협력 교수, 협력교수를 통해 얻게 된 실천적 지식</li> <li>부모와 교사의 성공적인 협력관계 및 운영사례: 통합교육 구성원의 관계형성과 사례(부모-교사, 특수교사-일반교사),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역할,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환경, 교사-부모 간 긍정적 관계형성 모델 제시</li> <li>중등과정에서의 통합교육: 중고등학교 시기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경도 정신지체 학생의 특수학급 적응 경험, 일반학급, 특수학급에서의 학교생활, 진로직업교육의 고민</li> </ul> </li> <li>팀별 활동(90분): 팀별 선정 사례 재확인, 액션 플랜 초안 준비, 향후 역할 분담(구체적인 액션 플랜 작성을 위한 역할 분담, 연구진 지원)</li> <li>연구진 피드백(30분) 및 소감 나누기</li> </ul>
점검 및 반 성	5월 29일 (10시~13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액션러닝 코치 협의</li> <li>선행연구 조사, 사례의 명료화, 액션 플랜 초안 작성 등</li> </ul>
발표 및 공 유	6월 13일 (10시~13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별 활동(90분): 액션 플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수정(연구진이 액션 플랜 초안을 작성하여 팀원들에게 배포), 액션 플랜 완성</li> <li>결과 발표(40분): 팀별 액션 플랜 발표 및 피드백</li> <li>연구 종료(50분): 소감 나누기 및 점심식사</li> </ul>
평가	6월 20일 (10시~12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액션러닝 코치 협의</li> <li>프로그램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 등</li> </ul>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액션러닝프로그램은 액션러닝코치진의 협의회와 참여교사의 실행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약 석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액션러닝코치진의 협의회는 참여자 모집부터 액션러닝프로그램 기획, 주제 선정과 명료화, 주제에 따른 이론 강의 내용 논의, 해결방안 도출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 내용 결정, 평가 및 성찰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협의회에는 액션러닝코치 이외에도 특수교육학과 교수와 BK21플러스사업팀 연구교수가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은 이론 강의와 팀별활동, 그리고 액션러닝코치의 피드백으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우선 참여자를 대상으로 액션러닝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합교육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구성된 팀 별로 팀 리더 선정, 팀별 주제 선정, 선정된 주제에 대한 명료화, 역할 분담 등을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액션러닝코치는 팀원들이 주제를 명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였다. 마무리 시간에는 팀 별 활동결과를 전체적으로 발표하여 나누고, 리더가 선정된 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팀별로 선정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액션러닝코치들의 강의를 이루어졌다. 이 강의에서는 통합교육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제, 즉 통합교육상황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교수 학습 지원, 부모와 교사의 성공적인 협력관계 및 운영사례, 중등과정에서의 통합교육에 대한 어려움 및 성공적인 대처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어 이루어진 팀별 활동에서는 팀별 선정 사례를 재확인 한 후 액션 플랜 초안을 준비하였고, 액션러닝코치의 지원 아래 구체적인 액션플랜 작성을 위한 역할 분담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팀별 활동에 대한 리더의 피드백과 연구 참여교사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액션플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액션플랜을 완성하였다. 이어 팀별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발표하여 공유하고, 이에 대한 리더의 피드백 및 연구 참여자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액션러닝프로그램의 실시 절차와 내용은 표3에 제시하였다.

## 2) 액션러닝프로그램 내용

액션러닝프로그램은 사례 선정, 사례의 명료화, 해결방안 탐색, 현장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 작성의 과정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각 팀 구성원들은 통합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례에 대한 동기를 제시하였다. 액션러닝코치들은 참여교사들이 사례를 보다 명료화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코치진의

피드백은 선행연구 검토와 몇 차례에 걸친 액션러닝코치들의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팀별 선정사례 동기와 명료화에 대한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팀 별 선정 사례 및 사례의 명료화

구분	선정사례	사례 선정 동기	사례의 명료화
1팀	의사소통 부제로 인한 교육 주체간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함. 특히 특수교사에게 물어도 잘 알지 못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음.</li> <li>• 특수교사는 학생에 대한 정보도 나름 일반교사에게 주고 있지만 통합학급에서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li> <li>• 일반교사는 업무과중과 함께 많은 비장애학생들을 담당하므로 장애학생까지 마음은 있어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음 → 이렇게 통합교육의 핵심 주체들 간 의사소통 부재는 교육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li> </ul>	통합교육의 핵심적 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통한 교사들의 원활한 협력의 방법은 무엇일까?
2팀	부모의 특수교육 거부로 인해 장애위험군 유치원생이 교육적인 방입에 놓이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에서 장애위험군으로 보이는 유아가 한 반에 1명~2명 정도 보임.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나 개인적 판단, 교사와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유아의 발달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유아가 가진 장애를 거부함. 이로 인해 장애위험군 유아의 교육적 방입을 초래하고 조기 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됨.</li> <li>• 유아는 발달 특성상 잠재력이 풍부하고 발전 가능성이 많으므로 초기에 장애진단에 따른 특수 교육적 지원이 주어지면 앞으로의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장애위험군 유아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음.</li> </ul>	부모의 장애 진단 과 특수교육 배치 거부로 인해 장애위험군 유아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방치될 경우 교사는 유아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교육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3팀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부족한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수교사, 일반교사, 관리자, 학부모, 학생 등 관련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li> <li>• 통합교육의 주요 목적인 장애학생의 사회로의 성공적인 적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또래 사회 내에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협력, 즉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함.</li> <li>•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의 부족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물리적 통합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li> <li>•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부족한 상호작용의 유형과 원인,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제 적용해봄으로써 학생들 간의 성공적인 협력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함.</li> </ul>	일반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놀림, 따돌림을 받는 경우, 일반학생들이 장애 학생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관심을 보이지만 장애학생의 상동행동, 공격행동, 결핍된 의사소통 의도로 인해 상호작용이 어려운 경우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4.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의 자료는 크게 액션러닝활동에서 수집한 자료와 액션러닝코치들의 협의 회 자료로 구성되었다. 먼저 액션러닝활동에서 논의한 참여교사들의 토의내용을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고, 액션러닝코치들의 협의내용과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일 자료를 수집하였다. 더불어 마지막 차시 팀별 발표내용과 액션러닝코치들의 피드백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사하였고, 액션러닝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액션러닝코치들의 협의자료나 관련 선행연구들도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작성한 액션러닝코치들의 성찰일지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세 명의 연구자가 여러 번에 걸쳐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참여자들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액션플랜을 구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참여자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변화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해석을 메모로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일개를 구성하고 구성한 자료가 해당 내용에 적합한지 다시 연구자들 간 협의를 통해 수정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내용을 세 명의 연구자가 공유하여 연구주제와 적절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였다.

#### 5. 연구의 진실성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토의내용과 영상자료를 전사한 내용을 세 명의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정확성을 체크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동료 연구자 간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과에 포함된 해석이 적절한지 세 명의 연구자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의견이 다른 경우 다시 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Ⅲ. 연구 결과

세 팀이 선정한 주제에 대한 토의자료와 발표내용을 토대로 참여자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통합교육구성원들의 변화, 참여자들의 성찰에 대한 내용으로 큰 틀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상이한 지평 형성’

### 1) 통합교육대상자로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은 장애학생이 통합교육현장에 존재하려면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생각은 장애학생의 배치에서부터 학부모들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수교사 F: 저는 통합교육이 활성화하려면 삼진아웃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동적인 문제가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감당이 안돼요. 그 아이들 사실 통합에 걸림돌이에요. **행동문제가 학교에서 세 번 이상 확인되면 그 아이는 통합에서 아웃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교사(학부모) C: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특수교사 E: 특수학교로 가야지요. **일반학교는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이니 그 아이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해요. 오히려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일반교사(학부모): 그럼 특수학교로 가면 그 아이의 행동문제는 없어지나요?

일반교사 A: 아무래도 특수학교에는 좀 더 전문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반에 있으면 반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1팀 리더: 이 자리는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아이가 통합교육대상자로 적당한가를 가늠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통합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1팀 5월 23일 토론내용

일반교사와 더불어 이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 또한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로 통합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한 참여자가 말한 “삼진아웃제”에 대해 특수교사인 일부 액션러닝코치들도 동의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코치진의 협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는데,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더불어 일반교사들은 장애학생의 학습수준과 장애정도를 통합교육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교사 A: 그러니까 배치를 할 때 **통합교육이 의미가 있으려면 현행수준과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통합교육을 아예 하지 않는 학생들은 특수학교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도화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통합교육 의미가 있을 학생에 대해서도 거부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거지만, 이제는 삼진아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전체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이라면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통합교육은 돌봄이 아니고 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문제점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1팀 5월 23일 토론내용

일반교사 3: 제 개인적인 사례를 보면 **엄마들이 100% 완전통합을 원하세요. 장애가 있어도**. 그런데 사실은 유치원에서도 **부분통합이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럼에도 완전통합을 원해요. 그게 학부모님들 마음이다 보니 **장애판정을 안 받고 일반학급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미룰 수 있는데 까지 미루고 완전통합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에는 유예자들이 문제가 됩니다. 초등학교로 올라가야 하는데 항상 입학 시즌에 유예자들이 많아요. 그건 학부모님들의 선택에 의한 유예인데, 대부분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거든요.

2팀 5월 23일 토론내용

장애학생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통합교육구성원 간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인지수준이나 장애정도를 고려해 통합교육대상자로 적합한지를 판별해야 한다는 생각은 통합교육의 가치와는 분명 어긋나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그러나 장애학생들의 “현행 수준” 이나 “다양한 정보” 에 따라 배치를 결정해야한다는 교사들의 생각은 교육에서 장애학생이 아닌 교사가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완전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장애진단을 받지 않는다는 학부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서도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엿볼 수 있다. 장애가 있으면 완전통합교육을 하기 보다는 부분통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통합교육이 곧 특수교육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이처럼 통합교육대상자는 장애정도나 인지수준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생각이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위의 제안은 통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이기에 우리는 분명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교육의 의미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또는 가르치기

쉬운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교육의 의미를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가르침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아닌 장애상태나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닐까?

2) 통합교육환경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통합교육환경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들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협력적 방식으로 교육을 이어가기보다는 역할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교사들은 통합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들이라는 것에는 대체로 긍정하였지만, 그 역할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특수교사로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나 교수방법을 지원받고 싶지만, 이에 대한 특수교사의 협력이 어렵다고 하였다. 특수교사 또한 장애학생의 공동담임이라는 역할이 있지만 일반교사와 학부모가 자신들에게만 너무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학부모 역시 자녀에 대한 상담을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중 누구와 하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일반교사 B : (중략) 통합교육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일반학급 선생님이란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2년을 했지만, **학생에 대한 정보를 특수교사로부터 얻기 힘들다고** 느꼈어요.

일반교사 A : 통합교육 과정에서 일반교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럼 특수교사의 역할은 뭔가요? **일반교사가 담임이라면 특수교사는 담임이 아닌가요?**

특수교사 F : 담임이죠. **공동담임**인데, 최대한 아이에 대한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학생을 케어하는 입장이고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죠.

일반교사 A : 정보를 제공해도 그 담임이 정보를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특수교사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주고 그 선생님(일반 교사)은 그 학생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담임 입장도 생각해야죠.

특수교사 F : 그렇게 생각하면 통합교육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거죠.

일반교사 A : 담임 중 중등 일반담임이 가장 힘들어요. (중략) 통합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걸 어떻게 협력할까를 이끌어 내야하는데, **담임은 여력이 없다는 거죠.**

특수교사 F : 특수교사도 여력이 없어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1팀 5월 23일 토론내용

특수교육대상자라는 구별은 통합교육상황에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이중의 소속을 갖게 함으로써 교사들에게 역할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더불어 장애학생 또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소속감을 잃게 된다. 통합교육현장에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서로 협력하며 소통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액션러닝활동 초기 참여교사들은 각자의 업무 부담감만을 강조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역할에 서로 다른 시선을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교사 다: 객관적인 수치로 특수교사가 맡고 있는 학생의 수는 두셋이지만 일반교사는 2~30명에 플러스 두 명, 일반교사가 느끼는 업무 부담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솔직히 특수교육대상자학생이 자기에게 배정이 되면 올해는 많이 힘들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것은 맞아요.(중략) 좀 전에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3팀 5월 23일 토론내용

특수교사 F: 도움실이 없을 경우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도움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 안에서 분리가 돼서 어찌되었건 통합교육이라고 하지만 이 학생들이 통합교육 받는데 있어서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일반교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조금만 힘들면 보내세요. 도움실로.

1팀 5월 23일 토론내용

일반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한 역할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특수교사는 특수학급이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통합교육이 더 저해된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교사들은 장애학생이 학습과 행동문제를 보일 경우 특수학급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로 특수학급에 전일제로 배치된 장애학생이 있을 시 특수교사는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두 주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는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진정한 통합교육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합교육상황에서 특수학급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구성원 간 모두 다를 수 있다. 나 또한 특수학급이 있어 오히려 통합교육이 저해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특수학급의

존재 유무와 통합교육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통합교육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장애학생의 몫일 것이다. 통합교육에서 교사들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는 언제든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 3) 통합교육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통합교육구성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각 주체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 소통의 중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각자의 업무 부담으로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통합교육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부모 역시 소통의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혼란을 겪고 있었다.

특수교사 라: 유치원에서도 거의 모든 문제가 선생님들 간 소통이 안 이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사소한 문제여도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통합교육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특수교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가 내 반(특수학급)에 왔을 때만 잘 알잖아요. 일반학급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죠. 결국 일반교사가 도와줘야한다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3팀 5월 23일 토론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교육환경에서 특수교사는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보다는 특수학급에서 개별화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급에서는 특수교육실무원이 더 많은 시간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행동 등 여러 측면에서 소통해야 하지만, 특수학급에 주로 있는 특수교사가 통합교육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아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주체가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교사 B: 일반교사 입장에서도 학부모에게 뭔가 정보를 주려고 해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부모들도 특수교사에게 더 의지하는 것 같고, 특수교사는 또 나름대로 바쁘다 그러고.

리더(학부모):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교사에게 무얼 요구하기는 어려워요. 일반학생들 위주로 보기 때문에 장애학생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특수교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물어보죠. 근데 또 특수교사들은 통합교육 상황에 있는 시간이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기도 해요. 학부모입장에서 우리는 을이예요. 그래서 교사에게 요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일반교사에게는…

특수교사 F: 일반교사 역할이 통합교육에서 크다고 했는데 일반교사는 업무가 많아서 특수교사에게 요구를 한다? 그건 특수교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것 아닌가요?

1팀 리더: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하는데 힘들다고 느끼고, 일반교사는 특수교사가 정보를 더 많이 줘야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지도도 하고 일반아이들과 융합할 수도 있고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정보를 얻기 힘들다. 근데 또 특수교사는 정보를 주려고 해도 일반교사가 거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팀 5월 23일 토론내용

통합교육구성원 간 의사소통은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애학생을 중심에 두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세 주체 모두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였다.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의 거부로 소통이 어렵다고 하였고, 일반교사 또한 특수교사로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기 힘들다고 하였다. 학부모 역시 스스로를 “을”로 위치지우며 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통합교육상황에서 각 교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장애학생을 위한 협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의사소통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특히 통합교육구성원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더욱 필수적이다. 통합교육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의사소통기술로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인다.

## 2. 통합교육 구성원들의 변화: ‘상호이해를 통한 지평융합’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상이한 지평을 가진 통합교육구성원들이 새로운 공통의 세계 속으로 진입하면서 변화를 겪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통합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장애학생에 대한 역할갈등이 있었지만, 공통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내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부단한 상호작용과 지평융합을 통해 이해가 확장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adamer(1990)는

지평융합을 개인이 형성된 선입견을 자각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통합교육구성원들이 서로의 지평을 드러내고 논의하면서 자신의 선입견이 무엇 인지를 깨달아가고, 이를 토대로 협력방안을 함께 도출해보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형성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각 팀 별 주제에 대하여 참여교사들이 어떠한 해결방안과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더불어 액션러닝코치의 피드백을 통해 참여교사와 액션러닝코치들의 지평이 어떻게 융합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해 나가고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역시 변화되고 있었다.

1)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교육구성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가 긍정할 수 있는 실천사항들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1팀의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주요내용으로 다루었다. 이 팀에는 장애학생학부모인 참여자가 두 명 포함되어 있어 다른 주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대화의 장이 되었다. 1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표 5와 같다.

액션러닝코치들이 선행연구를 탐색한 결과, 많은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은 특수교사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참여자들 중 특수교사들은 한 달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이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개별적으로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힘들다고 하였다.

개별화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세 주체가 중심이지만 변하지 않는 건 전적으로 **특수교사 업무로 인식되고** 있어요. 경력이 낮은 일반교사들은 개별화교육에 대해 잘 몰라 관련 연수 요구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경력이 있는 일반교사들은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역시 선생님의 제안처럼 **개별화교육계획에 일반교사의 참여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뿐 아니라 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합학급에서 또래관계나 장애학생의 참여정도, 학급에서의 역할 및 도우미에 대한 계획이 계획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팀 5월 15일 액션러닝코치 협의내용

담당교사와 일반교사의 참여 확대 역시 현재 직업교육 담당교원, 일반교육교원 그런 식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특수교사가 가서 학생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고 협력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

이거든요. (중략) 교육과정 안에 포함된 게 아니라 특수교사가 이 시간에 한 시간 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담임선생님 시간을 뺏 것 같으면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특수교사도 눈치가 보이고 특수교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중략) 그런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좋겠다는 것을 말해 봅니다.

1팀 6월 13일 액션 플랜 발표내용

<표 5> 1팀의 액션 플랜 및 액션러닝 코치의 피드백 내용

주요 해결 방안	액션 플랜	피드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초 학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세워지는 계획보다 시간을 확보해 학생에 대해 파악</li> <li>⊙ 특수학급 내에서의 특수교육보다 통합교육지원팀으로 역할 확대</li> <li>⊙ 교육전문성을 위해 담당교과의 일반교사 참여 확대</li> <li>⊙ SWPBS 지원팀처럼 통합학급 내에서의 행동 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초 한 달간 장애학생의 통합학급에서의 상황을 각 과목별 담당교사를 포함해 모두 면밀히 관찰한다.</li> <li>⊙ 관찰사항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의 통합가능성을 정하고 통합가능 교과의 교사는 특수교사에게 수정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계획안에 담는다.</li> <li>⊙ 특수교사는 통합교육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통합학급에서의 지원내용을 담고 역할을 담당한다.</li> <li>⊙ 최근에는 장애로 인한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행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SWPBS 지원팀처럼 통합학급 내에서 학생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으로 지원해서 장애학생의 통합학급 내 교육을 다각도에서 지원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되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역할에 대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 역시 필요함.</li> <li>⊙ 일반교사의 특수교사로서의 역할분담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특수교사의 일반교사로서의 역할은 특수학급 내에서 홀로 고립된 존재가 아닌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보다 적극적 참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임.</li> <li>⊙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과정에서의 시스템변화가 반드시 필요함.</li> <li>⊙ 일반교사의 특수교육학 개론 필수이수의 사례처럼 보다 적극적인 교육의 기회가 양성과정에서부터 필요함.</li> <li>⊙ 통합현장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사례가 더 많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li> </ul>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과정에서는 특히 특수교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것은 특수교사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일반교사를 비롯한 다른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한 특수교사는 제도적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에 대한 절차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면 학교장과 담임, 그리고 교과 교사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특수교사와 더불어 일반교사들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역시 특수교사만의 역할이 아닌 공통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1팀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통합교육상황에서 특수교사는 매우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수학급에 전일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고립감은 더욱 심하다고 하였다. 아래의 이야기는 통합교육상황에 있는 한 특수교사가 일반교사의 역할을 함께 맡고 싶다는 내용이다.

특수교사가 일반교육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과목을 담당하면서 장애아동을 케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특수교사도 전문성을 더 인정받으면서 통합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중략). 특수교사하면 아이들이랑 그냥 도움실에서 같이 있는 선생님? 학생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저희 중등은 특수교사도 복수전공을 해서 일반교과도 수업하면 좀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면 대학에서 교사양성시스템 변화가 필요하겠죠.

1팀 6월 13일 토론내용

1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현재 교육상황으로는 당장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수교사가 일반과목을 함께 가르친다던지, 특수학교 특수교사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사 양성시스템이 다르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 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교사의 고뇌를 통해 통합교육상황에서 특수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이 특수교사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닌 일반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교육상황에서 특수교사들이 가지는 부담 또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2) 장애유아 진단 시 교사와 학부모는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2팀은 유치원 과정에서 장애진단을 미루는 학부모와의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요 사례로 다루었다. 2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표 6과 같다.

참여교사들은 유치원 통합교육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례를 여러 번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상태를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사로서 학부모에게 어떻게 장애진단을 권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유아기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 유치원생이 교육적 방임에 놓이는 상황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좀 늦된 애예요. 좀 있으면 괜찮아져요.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논문에서는 주로 제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2팀 5월 9일 토론내용

<표 6> 2팀의 액션 플랜 및 액션러닝 코치 피드백 내용

주요 해결 방안	액션 플랜	피드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에게 장애위험군 유아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검사자료, 선별검사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부모에게 유아의 문제를 인식시킴</li> <li>• 부모가 유아를 관찰하여 다른 유아와 다른 점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li> </ul> </li> <li>◎ 부모와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적 방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조기 교육의 중요성 강조함</li> <li>• 특수교육의 장점과 설명하고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함</li> <li>• 부모와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함</li> </ul> </li> <li>◎ 모범 사례의 학부모와 만나는 기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유아의 문제 행동 관찰, 비디오 촬영, 유아 면담, 일지 작성, 주변 교사나 전문가와 의견 나눔</li> <li>◎ 유아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한다. : 한국판 유아발달 선별검사, 시지각 발달검사, 영유아 언어발달검사 등 객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 수준 파악</li> <li>◎ 부모가 유아의 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부모가 수업을 참관하고 보조 교사로 유치원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li> <li>◎ 부모와 상담을 한다. :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상담 활동이 유아를 위한 것임을 알리며 공감대를 형성함. 유아의 조기 교육과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함.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해 설명함.</li> <li>◎ 적절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한다. : 유치원과 가정에서 협력하여 유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교육적 지원 제공</li> <li>◎ 상담과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다. : 상담 내용을 문서화시킴. 교육 자료를 포트폴리오로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슷한 사례의 학부모와 만나서 해결책을 듣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특수교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li> <li>◎ 학부모가 자녀의 장애 진단을 늦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기</li> <li>◎ 장애 진단 후 유치원에서 장애학생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기</li> <li>◎ 장애 진단과 통합교육의 관련성 생각해보기</li> </ul>

참여교사들은 자녀에 대한 장애진단 권유가 학부모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자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참관과 동영상 촬영 등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먼저 부모님들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선별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선별검사를 하는 거에도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발달검사를 먼저 해요. (중략) 그 결과를 토대로 일반학생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검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선생님들이 검사를 한다든지 (중략) 부모님들께 직접적인 관찰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수업에 참여해서 다른 아이들과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유치원에 보조교사로 며칠 동안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상담을 진행하구요. 이를 토대로 진단을 권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팀 5월 23일 토론내용

실제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상황을 교사들에 비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자녀와 비슷한 또래들을 함께 보지 못하므로 주관적이기 쉽다. 그러므로 참여교사들의 의견처럼 다양한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참관수업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상황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은 유아의 장애진단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부모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부모와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생각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장애진단을 받을 시 부모의 충격을 고려하여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상담이에요. 상담할 때 **라포형성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부모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담내용이 전체적으로 아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특수교육의 장점을 전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판정이나 등급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육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발달지체 같은 경우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임이 되었을 때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팀 6월 13일 액션플랜 발표내용

프로그램 진행초기 2팀 참여자들은 장애가 있는 유아의 경우 완전통합교육보다는 특수교육환경에 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더불어 자녀의 장애를 부정하는 부모로 인해 교육적 방임이 초래되며, 완전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진단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교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교사들이 자녀의 장애진단을 미루는 학부모들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장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그로 인한 낙인과 통합교육에서의 배제들을 더 염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참여교사들의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이론 강의를 통해 장애를 가진 유아기 학부모의 심리상태를 강조한 것도 있었지만, 참여자 중 두 명의 학부모가 자신의 관점을 솔직히 드러낸 부분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유아를 위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찾기 위해 교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참여교사들은 장애판정이나 등급보다는 특수교육의 장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부모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지식도 쌓아가고 있었다.

### 3)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구성원이다. 통합교육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배려하는 것을 체험해 나갈 것이다. 장애학생의 측면에서는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고, 비장애학생들 또한 장애학생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3팀에서는 통합교육상황에서 또래들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다. 3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표 7과 같다.

일반교사들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거나 또래들을 도우미로 활용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프로젝트수업과 같은 구체적인 교수활동을 제안하였으며, 장애이해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었다.

일반교사 가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아이한테 역할을 쥐주기도 해요. 동극 활동을 할 때 시작과 끝을 알리는 슬레이트나 징을 치거나, 이러면 그 아이로 인해 시작이 되고 활동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렵지 않은 역할이면서 그 아이가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역할을 제공하면 아이들도 같이 저 아이하고 같이 하는 협동학습이 되니까,

3팀 5월 23일 토론내용

일반교사 다 :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또래 도우미를 붙여줘서 지원해요. 친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도우미도 번갈아 가면서 했거든요. 한 아이만 하니깐 계속 그 아이한테만 의존하고 그 아이하고만 상호작용하고 다른 애들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고 도우미도 교육을 시켜야 해요.

3팀 5월 23일 토론내용

일반교사들이 제시한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활동과 더불어 특수교사들은 거꾸로 수업, 배움의 공동체 수업과 같은 수업형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한 명의 아이도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움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이론으로 통합교육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명희, 곽승철, 2016).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통합교육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표 7〉 3팀의 액션 플랜 및 액션러닝코치 피드백 내용

주요 해결 방안	액션 플랜	피드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학생 대상 장애 이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사 초빙하여 장애이해교육 실시</li> <li>• 장애가 있는 인사를 초빙하여 장애인의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제공</li> <li>• ‘불편함의 날’ 을 제정하여 의도적인 불편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를 간접적으로 체험</li> </ul> </li> <li>⊙ 장애학생 대상 사회적 기술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적 의사소통을 통해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도록 함</li> <li>• 장애학생에게 필수적이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역할 부여</li> </ul> </li> <li>⊙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상호작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학생에게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게 대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모델링 제공</li> <li>• 장애학생 일일 도우미 지정</li> <li>•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수업 실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사나 장애가 있는 인사 초빙하여 장애이해교육 실시한다.</li> <li>⊙ 우리 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 계획을 수립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반 장애학생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기</li> <li>• 우리 반 장애학생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실시</li> <li>• 브레인스토밍을 토대로 우리 반 장애학생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대해 조별로 이야기 나누고 공유하기</li> <li>• 조별 토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리 반 장애학생의 선호도에 대한 애정지도 제작하기</li> <li>• 애정지도를 통해 우리 반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하는 방법을 교사가 모델링</li> <li>• 우리 반 장애학생을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여 첫 시간의 그림과 비교하기</li> </ul> </li> <li>⊙ 장애학생에게 중요하면서도 간편한 역할(예: 동극 활동 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 울리기)을 부여한다.</li> <li>⊙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일일 도우미를 지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이해교육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li> <li>⊙ 각 장애 범주에 대한 특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대상, 즉 사람 중심의 장애이해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li> <li>⊙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교사의 지원은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li> <li>⊙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술 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적용 방안이 부족함.</li> <li>⊙ 장애학생 대상 프로젝트 수업 실행 시, 정작 주인공 장애인 장애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li> </ul>

특수교사 라: 연구수업으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제가 했어요. 이 수업자체가 모든 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한다면 실질적인 집단으로 꾸미거든요. 그러면 행정구역에 대해 조사했을 때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자기 역할을 다 맡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애들이 가르치면서 넌 이것을 해라, 자료를 주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3팀 6월 13일 토론내용

특수교사 마: **또래관계라는 게 결국 교사역할과 연결되는 거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편견이 있어 그 친구에게 다가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 때 선생님이 그 친구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하던지 설명이 있었으면 내 편견, 내 생각들이 조금 더 변하진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소외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런 애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놀게 해줄까. 결국 또래관계도 교사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이끌어줄 교사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팀 6월 13일 토론내용

통합교육과정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상호작용 촉진은 위 참여자의 경험처럼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참여자의 말에도 공감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 또한 이러한 고민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과는 다른 위치에 있는 교사의 의견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지평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생각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타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으로써 진정한 지평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합교육구성원 간 열린 대화는 통합교육에 대한 보다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 3. 통합교육구성원들의 성찰: ‘현장적용을 통한 지평 확장’

이 연구에서 적용한 액션러닝활동은 액션러닝코치 8명과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20명으로 구성된 두 그룹으로 운영되었다. 액션러닝코치들은 특수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치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프로그램이었지만,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참여교사들 간 서로 다른 인식을 통해 현재 통합교육의 문제와 한계를 직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액션러닝코치들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도 도출해 보았다. 프로그램과정에서 액션러닝코치들은 서로의 생각을 협의함과 동시에 개인 별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아래 내용은 그 일부이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돌아봤을 때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기 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흘러간 것은 아닌가 싶다. 조원들 중 보다 상황에 깊이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전체 논의가 흘러갔다. (중략) 한 사람의 교사가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여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학교 전반의 학사일정을 다루거나 제도와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 가감 없이 모아지고 연구 결과물로 나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진으로서 많은 고민과 책임을 공감한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통합교육현장은 매 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도로 지침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한 해결과정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이번에 진행한 액션러닝은 현장성을 반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서로 각자의 입장만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전사하면서 논의 내용을 들어보니 각자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상대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되었고,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개별화교육계획과 관련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다각도로 살펴 볼 수 있었다. 후반부로 가면서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고 상대의 대안을 호응하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있는 통합교육환경에서는 이런 부분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태도변화도 볼 수 있었다. 통합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정말 힘써야 할 일은 동료교사와 30초 정도의 짧은 전화통화도 힘들다는 현실에서, 서로 마주 앉아 대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나누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뜻 깊은 만남의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1팀 액션러닝 코치 성찰일지

통합교육에 대하여 여러 위치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부분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다수였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어렵다는 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건이 좋아져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분명 구조가 바뀐다면 확실히 나아질 것 같다. 현장에서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드는 식 통합교육 정책은 이제 그만 마무리했으면 한다. 많은 교사들이 지나치게 어려워져있는 **일반교육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사이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놓여졌을 때의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공동체 개념이 아닌 미래의 직업을 위해 거쳐 가는 곳이 학교라고 이미 변질된 교육 풍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쪽의 목소리로밖에 치부하지 않는 현실은 계급적 생각이 아직 팽배해 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교육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정립하고, 경쟁이 전부가 아닌 개개인 학생들의 역량을 보다 높이는 교육, 즉 특수교육대상학생이란 개념보다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란** 이미지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2팀 액션러닝 코치 성찰일지

통합교육이 제도적으로는 정착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저마다 다른 경험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각 자의 통합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통합교육이 나아갈 다양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 의미가 깊었다.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입장에 따른 문제점과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서로 마주 보며 의견을 나누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교육을 수행하며 문제를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교사로 옮겨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쉬운 점은 액션러닝에 통합교육과 관련된 참여자가 더 많았으면 통합교육 발전을 위한 좀 더 다양한 제도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3팀 액션러닝 코치 성찰일지

각 팀 별 서로 다른 주제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도출해 나가면서 액션러닝코치들은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 교육구조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만으로는 통합교육현장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주체들의 관심과 열정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다양성이 존재하는 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의미를 돌아보고,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구성원들의 태도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간 서로의 위치에 따라 통합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액션러닝 코치들의 의견 또한 다르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일례로 통합교육대상자의 배치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인데, 상당수 참여자들과 일부 액션러닝코치도 장애 정도와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액션러닝코치들은 프로그램 진행 중 서로 다른 생각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도 하였고 때로는 미완의 문제로 남겨두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적 지평의 옹고 그림을 구별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펼쳐놓음으로써 통합교육의 지평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두고 싶다.

####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통합교육구성원들이 통합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현재의 통합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액션러닝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통합교육을 위한 액션러닝프로그램은 액션러닝코치 8명을 중심으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로 구성된 20명의 교사들이 총 7회에 걸쳐 실행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 초기 통합교육에 대한 상이한 지평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정된 사례에 대하여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지평융합 과정을 통해 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게 되었다. 더불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적으로 탐색하며 통합교육구성원으로서 지평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교육구성원들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통합교육에 대한 상이한 지평을 형성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통합교육대상자의 조건으로 양호한 학습수준과 행동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실제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학교 과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교육부, 2017). 이러한 경향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의 통합교육 경험이 학부모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된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통합교육대상자로 학습수준이나 장애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인식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통합교육의 가치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김성애(2013)는 이러한 생각을 두고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한 부분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긍정할 수 있는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통합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교사들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특수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수교사들은 통합교육에서는 일반교사가 주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학부모 또한 교사들의 역할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통합교육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상이한 지평들은 교육현장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빈번하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권현수, 2016; 이원희, 박승철, 2014). 이렇듯 통합교육에 대한 구성원 간 서로 다른 이해는 통합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특수교육분야에서만 강조될 뿐, 아직까지 일반교육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면한 통합교육환경과 교육구성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을 넘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통합교육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교육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에서 통합교육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이다. 세 팀에서 도출한 사례들은 통합교육현장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그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교육구성원들 간 협력이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협력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임해주와 전병운(2014)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상호이해를 위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필요하며, 교사양성과정에서 협력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교사들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혜선과 정동영(2009) 역시 통합교육을 위해 협력적 팀 구성과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통합교육 구성원 간 협력은 제도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Turnbull 등(2011)에 의하면, “협력은 가족과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토대로 가족과 전문가에게는 간접적인, 아동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동의하여 형성한 관계를 뜻한다.” 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통합교육구성원들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장애학생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는 통합교육구성원 간 협력의 중심에 장애학생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통합교육에서 구성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성애(2008)는 통합교육의 올바른 실천을 위하여 일반교사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장애학생 역시 장애정도나 유형에 관계없이 일반학급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존재라는 교사들의 태도 변화가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 학부모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은 학부모와 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2팀은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통합교육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어려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학생은 완전통합교육보다는 부분통합, 즉 특수교육적인 지원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습 장애나 정서 장애의 경우처럼 자녀에게 인지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 부모들은 교사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김혜숙, 최동옥, 2013). 특히 유아기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장애진단 시 교사나 친구들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자녀의 장애를 완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단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학부모를 상담할 수 있는 교사의 상담기술이 중요하며 더불어 이 시기 학부모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필요해 보인다.

넷째, 통합교육환경에서 특수교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며 일부 특수교사들은 교사로서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통합교육환경에서 비교적 소수인 특수교사의 소외감은 공감할 수 있지만, 장애학생을 교육함으로써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교육을 효율성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은 아닐까? 정동영(2013)은 특수교사는 장애학생들의 특별한 요구로 특수학급 담임교사의 역할 이외 통합학급과 학교 전체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교사보다 더욱 전문성을 요구하는 역할이며 특수학교 교사보다도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한 역할이라고 하였다. 통합교육환경에서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을 담당함과 동시에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므로 그 부담감은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이 교사의 효능감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역할임을 깨닫고 역할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구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특수교육분야 연구자 및 대학원생으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치료사, 그리고 부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수에 비해 부모의 수는 두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통합교육구성원의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두 명의 학부모 역시 일반교사와 러닝코치로 연구에 참여하였기에 부모의 위치에서만 의견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통합교육 실천에서는 통합교육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 세 주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논의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통합교육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누고 통합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찾아보았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통합교육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지만, 액션러닝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다졌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민주, 최성규 (2011).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 만족도에 대한 관계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4), 197-217.
- 강현경, 황순영 (2012). 중학교 교사의 통합학급 담임 기피요인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4(4), 403-418.
- 교육부 (2017). 특수교육 통계.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권현수 (2016). 특수학급이 설치된 중등 일반학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통합학급,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3), 263-282.
- 김기룡, 이원희, 박승철 (2015). 액션러닝활용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예비특수교사의 부모관 및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2), 521-550.
- 김명희, 박승철 (2016). 배움의 공동체 수업에서의 통합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 **특수교육**, 15(1), 151-179.
- 김성애 (2008). 후설과 레비나스 윤리학에서 본 통합교육 교사의 윤리성에 관한 소고.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3), 429-456.
- 김성애 (2013). 통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과제. **특수교육학연구**, 48(2), 1-18.
- 김용욱, 우정환 (2014). 일반교사의 장애인과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및 관계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55-84.

- 김은라, 박재국, 정계숙 (2015). 액션러닝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아 부모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2), 23-49.
- 김자경, 강혜진, 임은영 (2012). 액션러닝을 활용한 장애아 통합교육 수업이 예비특수교사의 문제해결 능력과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 연구**, 14(3), 593-609.
- 김혜선, 정동영 (2009).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요구 비교.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2), 83-101.
- 김혜숙, 최동욱 (2013). **교사를 위한 학부모상담 길잡이**. 서울: 학지사.
- 류규태, 박경옥 (2016). 교수적합화에 대한 통합학급 교사의 인식과 향후 과제. **학습장 중심교과교육연구**, 16(3), 545-566.
- 박수홍, 안영식, 정주영 (2010).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액션러닝 프로그램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4), 95-124.
- 박승희, 이효정, 허승준 (2015). 전국 중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수업의 실제: 중학교 통합교육의 실상과 허상. **특수교육**, 14(1), 27-62.
- 박재국, 황순영, 최진혁 (2017). 액션러닝 기반 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특수교사의 문제 행동 중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52(1), 19-44.
- 원길재, 조현근 (2014). 유치원 통합교육 현장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경험하는 갈등과 상생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9(6), 367-391.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종호, 정소영 (2015).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어머니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장애인고등교육연구**, 1(2), 121-143.
- 이대식 (2007). 성공적인 통합교육에 필요한 일반교육의 조건. **통합교육연구**, 2(1), 1-27.
- 이미아, 김영미 (2017).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예비특수교사의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혁신연구**, 27(3), 121-135.
- 이원희, 곽승철 (2014).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통합교육 인식과 관점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특수교육학연구**, 49(3), 89-119.
- 이원희, 곽승철 (2015). 액션러닝 활용을 적용한 예비교사의 장애아 부모상담 프로그램 실행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0(3), 239-268.
- 이은지, 정지현 (2013). 액션러닝기법을 적용한 어린이집 교사교육 프로그램 실행연구. **아동교육**, 22(1), 215-237.
- 이태수, 김태준 (2012). 통합학급 당당 교사의 통합교육 배경변인에 따른 교수적 수정에 대한 인식 비교. **통합교육연구**, 7(2), 101-121.
- 이한얼 (2014). 특수교육대상아동의 통합교육 참여 수준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지적장애연구**, 16(4), 263-282.
- 임성혜 (2014). 액션러닝 활용 교사연수를 통한 연구과제 운영 사례연구. **발도르프교육연구**, 6(1), 107-127.
- 임해주, 전병운 (2014). 중학교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3), 445-469.

- 장경원, 고은현, 고수일 (2015). 학교에서의 액션러닝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교육방법연구**, 27(3), 429-45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84호, 2012.3.21., 타법개정}.
- 정동영 (2013). 특수학급 교사의 역할 재음미.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6(3), 67-102.
- 주미경, 김정연 (2009).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일반교육교원의 인식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97-420.
- 최민숙 (2015). 초임유아특수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에 관한 질적 분석. **유아특수교육 연구**, 15(4), 115-138.
- 허영석 (2013). 중학교 통합학급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혁신연구**, 23(2), 1-39.
- 황순영, 이미아 (2011). 중학교 통합학급 수학수업에서 수학교사의 교수적 수정의 실행도. **특수 아동교육연구**. 13(4), 195-209.
- Gadamer, H. G. (2012). **진리와 방법(2):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임흥배 옮김(원출판년도 1990). 파주: 문학동네.
- Turnbull, A., Turnbull, R., Erwin. E. J., Soodak, L. C., & Shogren, K. A. (2013). **장애아 가족지원 · 가족 전문가, 장애아: 협력과 신뢰를 통한 긍정적 성과**. 이미숙, 노진아, 김연하, 김정민, 김태영, 한민경 공역(원출판년도 2011). 서울: 학지사.

Action Research on Cooperation of Inclusive Education  
Team through Action Learning

Lee, Weon-Hee

Kwon, Hwi-Jeong

Lee, Ha-Young

Kawk, Seung-Chul

Kongju National University BK21plus Tea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up a specific action plan from the scene of inclusive education, and to suggest a new direction of inclusive education. The action research was conduct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We specifically applied a program used action learning to find out how members of the inclusive education should cooperate and execute.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8 action learning coaches, 10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10 general education teachers. They participated in an action learning program to find out how to implement the inclusive education cooperatively throughout seven times circulation of planning, implementing and reflecting.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who had different view of inclusive education were able to develop a specific practical knowledge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about action plan. The action learning program played an important role to extend a prospect of inclusive education by putting different perspectives of participants together and exploring the application possibilities to the inclusive education field.

**Key Words**

: Inclusive Education, Action Learning, Cooperation between Members of Inclusive Education, Action Research

---

논문 접수: 2018. 02. 07 심사 시작: 2018. 02. 07 게재 확정: 2018. 03. 21